

# 所謂 方壇式特殊形式의

## 石塔 數例

秦 弘 燮

1

韓國石塔의 形式이 方形重層이요 基壇、塔身、相輪의 三部로 構成되어 있음은 再論할 餘地가 없는 基本形式이고 細部形式에 있어서도 三國時代의 單層基壇에 對하여 統一時代의 二重基壇으로의 變化、 또는 百濟의 石塔이 木塔의 直模인데 對하여 新羅의 石塔이 다시 塼塔의 形式을 거친 點等 變化와 時代的인 特徵을 보게 됨도 이미 定型이 各各 밝혀지고 있다. 往往이 定型에서 벗어난 奇拔한 造型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異型도 基本形式위에서 部分的인 變形이지 基本形式을 全然 떠난 것은 아니었다.

다만 이 基本形式에서 벗어난 石塔으로는 善山 桃李寺에 傳하는 「華嚴石塔」을 注目하게 된다. 護石의 面石과 같이 構成된 높은 基壇 위에 模塼塔과 類似한 構造로 築造한 石塔이다. 通式의 基壇形式이나 塔身·屋蓋石의 形式은 찾아 볼 수 없다. 이 石塔이 韓國에서 造成되었음이 分明하고 그 造成도 麗代로 推定되고 있음에서 하나의 特殊形式의 石塔임을 틀림없다.

却說 筆者는 數年前 義城郡 安平面 石塔洞에서 雜石으로 築造한 特殊形式의 石塔을 調査한바 있었다. 이 石塔의 形式은 方形 層段을 이루었는데 他例를 볼 수 없는 初出의 例이었다. 이 殊異한 形式의 石塔에 對하여 늘 關心을 기울리던 中 安東郡 北後面 石塔洞에서 이와 同一

한 形式의 또 하나의 石塔을 調査하게 되어 더욱 關心을 기울리게 되었다.

筆者는 다시 山淸郡 今西面 花溪洞에서 駕洛의 讓王 仇衡王의 陵이라고 傳해 오는 層段이 있는 石築物을 調査하게 되었다. 그 形式이 前記 二例의 層壇形 石塔과 類似한 것이었다. 이에 筆者는 새로이 出現한 이 特異한 形式의 石塔을 여기에 紹介하여 諸賢의 參考에 供하고자 한다.

2

義城 石塔洞의 石塔은 南北으로 솟은 높지 않은 丘陵이 起伏하는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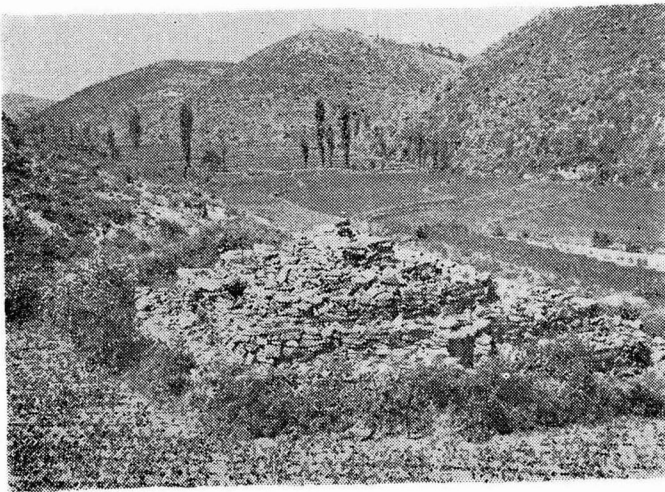


圖 1: 義城塔 全景

이에 넓지 않은 평지가 있어 農耕地가 되었고 이塔은 北쪽의 丘陵기슭에 建立되었다. 塔 앞에는 小路가 있어 東으로 義城에 西로 安平으로 通한다. 塔이 있는 位置에서 東北方의 언덕 위에는 李朝期의 浮屠가 있으나 破毀되어 一部 部材는 밑으로 轉落되었다.

塔의 北과 西의 兩方이 丘陵에 面하고 있어 그 傾斜는 東과 南의 方向으로 흐르는 地形위에 築造되었다. 塔은 南向하여 設計된 듯 하고 最下段에서부터 各層의 面積을 縮少시키면서 層段을 이루어 築造되었다. 위로 올라갈수록 南北 兩面의 減縮率이 커서 最上段에 이르러서는 長方形을 이루었다. 最下段의 넓이가 一一·四m × 一一·三m의 거의 方形이던 것이 最上段에서는 一·四m(南北) × 三·五m(東西)의 長方形이 되었다. 頂上 中央에는 같은 石材를 쌓아 올려서 相輪같이 突出하게 만들었으나 原形은 아닌 듯 하다.

雜石을 利用하여 이같이 築造한 이塔은 現在 五段까지 남아 있으나 頂上部의 處理가 매우 애매한 點은 아마도 後世의 攪亂된 탓이 아닌가 한다. 이 築造物을 塔으로 보는 가장 有力한 根據는 第二段 四面에 龕室을 開設하고 佛像을 安置한 點이다. 龕室은 姜道와 같이 內面이 高도록 築造하고 위에 蓋石을 덮고 있다. 蓋石 上面은 段을 이루었고 一部 落下된 蓋石이 있는가 하면 東面은 崩壞되어 一部에 原形을 남길뿐이고 佛像도 西·南·北에만 있을 뿐 東面에는 없다. 龕室의 크기는 高七六cm(西), 八四cm(南), 九三cm(北), 前面 幅 六七cm(西), 六三cm(南) 六三cm(北), 深 一〇五cm(西), 一〇〇cm(南), 八七cm(北)이다. 西·南·北 三面의 龕室에는 各各 一 軀式의 石佛을 安置하였다. 石佛은 擧身光에 頭光·身光을 갖춘 坐像으로 全高 各各 七八cm(西), 七八cm(南), 七四cm(北)이다. 手法은 거의 同一하여 同時作으로 보여지며 全面에 胡粉을 塗裝하였던 痕跡이 남아 있다. 石佛의 크기는 龕室 크기에 알맞아 塔과 佛像은 같이 設計되었던 것으로 보아도 좋을 듯 하다.

이塔을 構成한 石材는 거의 雜石에 가까운 돌을 使用하였고 一部에서 例를 들면 龕室 또는 石壇의 表面만은 比較的 큰 石材를 若干 加工하여 使用하고 있다. 이 石塔은 東面에서의 높이 七·二m로 破毀된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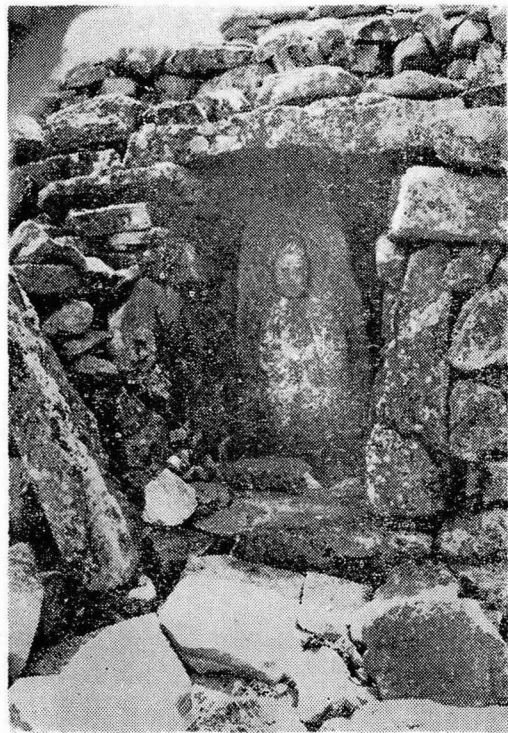


圖 2 : 義城塔 龕室

이 있으나 큰 破壞없이 傳해온 點은 多幸이라 하겠다.

3

安東 石塔洞 石塔은 鶴駕山 中腹에 位置하고 西쪽에는 石塔寺라는 조그마한 절이 있다. 길은 溪谷에 조그마한 평지가 있어 耕作地로 되어있고 이塔은 平地에 築造되어 있다.

現在 五段까지 있고 頂上部는 處理가 애매하여 石堆 같이 되어 있다. 西南向한 이 石塔의 크기는 最下段이 一三·六m(西南) × 一三·六m(西)의 方形이고 最上段은 二m(西北) × 二·四m(西南)이다. 現高는 五·

五m로 各段의 높이는 一m 内外이다.  
 用材는 義城塔과 같이 거의 自然石에 가까운 石材를 使用하였고 外面  
 만을 고르게 만들었다. 築造方法도 義城塔과 全然 同一 方式이나 다만  
 이 塔에서는 龕室이 全然 省略된 點이 다를 뿐이다.

4

이 兩塔은 龕室의 有無의 差異만 없다면 用材, 築造方法이 全然 同一  
 하다. 外形이 層段을 이루면서 平面을 줄여 올라간 形式 또한 兩者가 同  
 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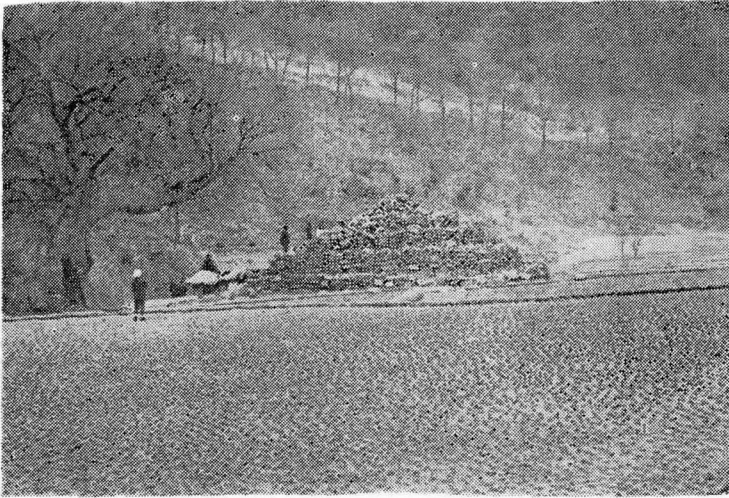


圖 3: 安東塔 全景

義城塔이 四面에 龕室이 마련되고 石佛을 安置한 點은 塔婆以外에서  
 볼 수 없는 形式임으로 石塔으로 築造되었음이 分明하다. 安東塔 또한  
 龕室이 없음이 다름뿐 義城塔과 同一한 樣式이고 보면 이 또한 石塔으  
 로 볼이 妥當할 것이다. 더욱기 이 兩塔이 位置한 地名은 모두 石塔洞  
 이다. 더욱기 安東塔에는 至近 距離에 「石塔寺」라는 古屋의 寺刹이 있  
 어 香火를 올리고 있으며 義城塔 또한 隣近 丘陵 위에 李朝期에 屬하는  
 寺院 境內에 建立되었던 塔婆로 보아 잘못이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  
 但 「方壇式石塔」이라는 呼稱을 붙여 보았다.

이 兩塔의 形式은 앞서 말한바와 같이 韓國 石塔의 通式에서 크게 벗  
 어나는 바로 일찌기 그 例를 볼 수 없었다. 이와 가장 類似한 例를 찾



圖 4: 安東塔 細部

는다면 前述한 善山 桃李寺의 華嚴石塔①이 形態에 있어 近似하고 安東 吉安面 松任洞의 石塔②이 用材에 있어 同類라 하겠다. 그러나 桃李寺

의 石塔이 他에서 類例를 볼 수 없는 形式이고 方壇形式을 이루고 있기는 하지만 그는 加工한 石材를 使用하여 整然히 築造한 點이 이와 다르고 安東 吉安의 塔이 雜石에 가까운 石材를 使用한 點에서 類似하겠으나 基壇, 塔身, 蓋石을 갖춘 點이 一般 石塔과 오히려 가깝다고 하겠다.

한편 이 石塔의 形式에 가까운 石塔아닌 다른 遺蹟을 든다면 輯安의 將軍塚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遺蹟이 塔姿아닌 古墳인 點에서 그 性格이 根本적으로 다르나 方形 層壇式의 構造인 點에서는 同一하다. 將軍塚의 石造層壇式 古墳의 形式이 南으로 石塔形式에 어떠한 影響을 끼쳤는지는 알 수 없으나 같은 古墳에는 어떠한 聯關이 있는 듯도 하다. 卽 慶州 九政里의 方形墳, 晉州 平居洞의 丁氏一族의 方形墳墓③ 등이 모두墳 龕 밑에 石造 方形의 護石을 들린 點은 一連의 關聯이 있거나 없을까.

다음 이 石塔의 築造年代의 考證이다. 이 같은 形式의 石塔은 他에 遺例가 없으므로 築造年代를 推定하기가 容易하지 않으나 尙 有力한 根據가 될만한 것은 義城塔 龕室內에 安置한 石佛像이다. 이 石佛像은 前述한 바와 같이 石佛의 크기와 龕室의 크기로 보아 石塔 築造와 同時에 造成 安置한 것으로 보여진다. 萬一 原來 安置하였던 佛像이 아니고 後世에 安置한 石佛이라면 龕室과의 均衡이 이같이 잡히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前提下에 石佛의 樣式을 보면 먼저 四面에 如來像을 配置한다면 四方佛일 것이고 四方佛일 때 四方의 尊名이 如一하지는 않으나 東方 藥師如來와 西方 阿彌陀如來는 어느 四方佛에서나 明白하다. 義城塔의 四方佛은 東方如來가 亡失되어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세 方向의 如來像들은 그 尊名을 알기 어려울 뿐 아니라 西方의 如來像도 阿彌陀如來로 볼 根據는 없다. 더욱이 그 中에는 合掌한 듯한 手印이 法衣 속에 가려 있어 더욱 애매하다. 相好나 身部 또는 衣紋의 彫刻 手法은 一面 均衡이 잡히고 있으나 健實함을 잃고 退嬰의 이다. 따라서 이들 石佛의 造成年代는 新羅末 乃至 高麗初로 推定된다. 石佛의 年代를 이같이 羅末麗初로 推定한다면 義城, 安東의 兩塔의 造成도 같은 時

期로 잡아도 無理는 없을 것 같다.

安東, 義城의 特異한 方形層壇形의 石塔과 類似한 遺構가 山淸郡內에 傳하며 仇衡王陵이라고 부르고 있다. 東國輿地勝覽 卷三十一 山陰縣 山川條에

王山在縣西十里山中累石爲丘四面皆有層級俗傳王陵云  
이라 있는데서 그 一端을 볼 수 있고 十八世紀以後「王山尋陵記」, 「讓王陵記」, 「王山誌」 등에 이에 關한 記錄이 남아 있다.

王陵이라고稱하는 이 遺構는 東向하였으며 安東이나 義城 石塔에서와 같은 雜石에 가까운 石材를 使用하였다. 西쪽 山에서 내려오는 急傾斜를 利用하였으며 東面에서 七段을 이루었으나 南北 兩面은 傾斜를 따라 層級이 均一하지 않고 東面의 幅도 고르지 못하다. 各層의 石列은 大體로 方形을 이루나 隅角이 뚜렷하지 못하고 直線이 아니고 波狀 같은 曲線을 이루고 있다. 頂上은 前面이 높은 橢圓形을 이루었는데 李朝期에 흔히 볼 수 있는 封墳과 恰似하다.

前面 中央에서 總高 七·一五m이며 第一段의 直線長은 前面에서 二〇·六m이다. 第四段 東面에는 龕室이 開設되어 있는 바 幅 四〇cm 內外, 高 四〇cm 內外, 深 六八cm이다. 이 石墳을 中心으로 周圍에 同一한 石材로 高 一m 內외의 石牆을 돌렸고 前面에는 「駕洛國讓王陵」이라 刻字한 石碑를 비롯하여 石床, 石人, 石燈 등을 갖추었다.

이 石墳을 仇衡王陵으로 確定지은 前記 記錄들은 大同小異하다. 그 中 洪儀泳(一七五〇—一八一五)의 「王山尋陵記」에 보면

智異之麓東迤爲山淸縣乾維者其名王山劔山腰有臺址平然者曰王臺臺下有 三韓古刹曰王山寺寺後不數百步疊石爲墳其階七級其高可三丈相傳爲大王 陵凡一山之內從古皆以王稱焉而大王陵之靈應異蹟聞于南土藤葛之蔓不犯 其莖烏鵲不敢飛越村姬褻語嘔血死里人冒葬經宵自掘倭寇欲發塚求寶白日 大雨驅而滄于前溪全軍俱沒

이라 있고 「水旱疾疫」에 영험이 있었다 한다. 그리하여 寺僧과 靈異함을 談說하는 가운데 寺僧의 發說로 木函이 있음을 알았고 그를 열어 보니 百年前名釋인 沙門 垣瑛의 山寺記卷이 있었다고 한다.

記曰方丈之東麓有山有寺上有王臺下有王陵故曰王山知守護陵墓故曰王山寺寺王水晶宮也王乃駕洛國十葉仇衡王爲新羅所滅來居于此卒而葬焉이라 있다. 한편 王山誌에는 그 函속에서 나온 物件으로 有弓劍遺衣各一而眞像二也一則題其上曰仇衡王像一則夫人服色而無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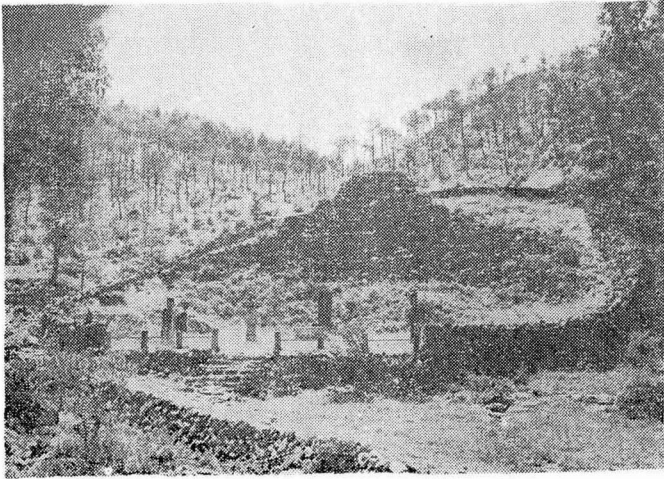


圖 5 : 山淸石墳 全景

等을 들고 있다.

筆者는 이 곳에서 仇衡王陵이라고 傳하는 이 石墳이 果然 仇衡王陵인지의 眞否를 가리고저 함이 아니다. 이 石墳의 形式이 저 安東·義城의 石塔樣式과 매우 類似한데 興味를 느낄 뿐이다. 東國輿地勝覽에는 「累石爲丘四面皆有層級」이라는 記錄이나 「王山尋陵記」의 「疊石爲墳其階七級高可三丈」이라는 記錄을 根據로 分析하여 보면 「홀로 쌓은 石墳으로 四面에 七段의 層級이 있고 높이는 約 三十尺이다」라는 데로 要約된다. 더 以上 자세한 構造說明이 없으나 그 形式이 대체로 安東이나 義城의 石塔과 類似하지 않을까 한다. 더우기 現 仇衡王陵을 連想한다면 이 石墳의 左右 兩側은 毀損이 많고 後方(西側)은 山上에서 내려오는 土砂로 埋沒될 可能性이 充分하다. 現在 七段을 이루고 있으며 前面亦 若干埋沒되어있음으로 그 밑에서부터 計算하면 現高 七·一五m에서 一(二m 더 높아질 可能性도 없지 않다. 이러한 類推는 隣近에 寺刹이 있었다는 事實과 아울러 安東·義城의 有壇石塔과 形式上 같은 樣式으로 分類할 수 있을 것이다. 特히 前面에 龕室이 있음은 義城塔과 同規의 構造임을 明白히 보여주는 點이라 할 것이다.

6

以上 三基의 石造建造物은 用材·構造等이 같을 뿐 아니라 現存遺構·地名·記錄等으로 보아 반드시 附近에 寺刹이 있어 그 寺院境內에 있었던 遺構임을 알겠다.

그러나 그 構造는 大體로 石塔으로 解釋함이 妥當한 것이나 아직까지 全然 볼 수 없었던 特異한 形式의 注目を 끈다. 이 形式이 우리나 라 石塔樣式의 發展過程에서 어떠한 位置를 차지하는지 前後의 關聯을 찾기 어려워 或은 善山 桃李寺의 華嚴石塔과, 或은 安東 吉安의 石塔과의 關聯을 생각하고 甚至於 高句麗 將軍塚을 連想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곳에서 곧 樣式的인 連關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다. 또 하나 이 以外的 다른 遺構에서 連關을 考慮한다면 羅末 麗初부터 流行을 본 戒



圖 6 : 山淸石墳 龕室

壇의 形式을 생각할 수 있다. 通度寺、金山寺、神勒寺 等に 남아 있는 戒壇 乃至 舍利塔 形式은 安東·義城의 石塔의 形式과 相通하는 點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方壇을 段을 지워 모으고 그 위에 塔을 安置하는 形式은 安東·義城의 塔이 用材와 段數에 差가 있지만 基本意圖에는 類似點이 많다고 하겠다. 한편 安東·義城의 石塔은 모두 頂上部가 攪亂되어 原來의 構造를 알 수 없게 되었지만 或前記 戒壇이나 舍利塔에 서와 같이 特別한 安置物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特異한 構造인 이들 遺構는 石塔 或은 舍利戒壇으로 解釋되어야 할 것이나 그 分布地域이 安東·義城이라는 至近距離에 同一한 遺構가 傳하고 떨어져 山淸에 類似한 例가 傳하는 點 또한 注目할 만하다.

註

① 朝鮮總督府「大正六年度古蹟調查報告」P·142 參照

檀國大學校博物館古蹟調查報告第二冊「善山地區古蹟調查報告書」P·一一〇參照

② 拙稿「安東吉安面 模埽塔」考古美術 六卷 三·四合號

③ 金元龍「晋州 平居洞 紀年高麗古墳群」美術資料 第九號